동국대 불교학, 석학들과 미래를 묻다

9월 3~4일 건학 120주년 국제학술대회

스코엔 불교사본 연구
세계적 권위자 한자리
지역 및 현대 불교부터
AI시대 불교학까지 조명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동국대(총장 윤재웅)가 건학 120주년을 맞아 세계 석학들과 함께 불교학의 전통과 미래를 조망한다.

동국대와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HK+사업단은 9월 3일부터 4일까지 1박 2일 간 동국대 법학관 모의법정에서 '살아있는 전통, 펼쳐지는 도전: 동아시아 불교와 그 너머(Living Traditions, Unfolding Challenges: Buddhism in East Asia and Beyond)'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 120년간 동국대가 축적해 온 불교학의 학문적 성취를 돌아보고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불교와 불교학이 나아갈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술대회는 크게 고전 불교문헌을 탐구하는 '문헌 연구'와 현대사회에서 불교의 변화와 역할을 살피는 '현대 세계와 불교의 새로운 모색'이라는 두 축으로 구성된다. 과거의 문헌을 정확히 읽고 해석하는 작업이 오늘날 불교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는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두 분야는 서로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된 연구 과제로 제시된다.

특히 첫날에는 세계적인 불교문헌 아카이브인 '스코엔 컬렉션(Schøyen Collection)' 연구를 이끌어 온 석학들이 대거 참여해 눈길을 끈다. '스코엔 컬렉션'은 중앙아시아와 인도 등지에서 전래된 다양한 불교 필사본을 포함하고 있어 초기 불교와 대승불교, 불교문헌의 전승 과정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옌스 브라르비그 오슬로대 명예교수는 '스코엔 컬렉션의 불교 필사본: 연구사 개요'를 발표하며 컬렉션의 형성과 연구 경향을 종합적으로 소개한다. 초기 대승불교와 불교문헌학의 세계적 권위자인 폴 해리슨 스탠퍼드대 교수는 컬렉션에 소장된 '심하 장군과의 대화' 필사본을 분석해 문헌의 내용과 역사적 의미를 살핀다. 마츠다 가즈노부 붓쿄대 명예교수는 마명의 일실된 〈장엄경론〉을 조명하고, 야오후미 도쿄대 교수는 근본설일체유부 율장 단편을 통해 고대 불교 율장 자료의 전승과 변용을 논의한다.

이어지는 '지역불교' 세션에서는 안준 미시간대 교수가 조선 초기 해원의례와 왕실 신앙을 다루며 크리스토프 퀴퍼스 룸비니국제연구소장이 국가 통치에 있어 불교적 세계관이 적용된 사례를 조명한다.

둘째 날에는 논의의 시선이 현대사회와 미래로 확장된다. 케이트 크로스비 옥스퍼드대 교수는 20세기 초 영국불교의 형성과정을 살피며, 동국대 교수 정덕 스님은 초고령사회인 한국에서 승가 노후 복지가 나아갈 방향을 조명한다.

불교사상 분야에서는 마크 블럼 UC 버클리대 교수가 근대성과 탈근대성이 불교에 던진 도전을 짚으며, 루치아 돌체 베네치아 카포스카리대 교수는 중세 일본 천태·밀교의 '본각' 담론을 발표한다.

마지막 'AI와 불교학' 세션도 관심을 끈다. 황순일 동국대 교수가 AI시대 불교학이 나아갈 방향을 점검하며, 불광대사전 영어 번역 프로젝트 편집위원 즈위에 스님은 〈불광대사전〉 영어 번역 과정에서의 LLM·에이전틱 AI 활용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발표되는 스코엔 컬렉션 관련 연구 성과는 스코엔 컬렉션 신규 총서 '동국대 건학 120주년 기념판'으로 발간될 예정이다.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옛 경전을 깊이 연구하는 일과 오늘의 세상에 응답하는 일이 둘이 아니라 하나임을 이번 대회의 두 분과가 함께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윤재웅 동국대 총장도 "이번 학술대회가 불교학의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 세계 학계와의 협력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법당·법회 첨단 음향기술 한자리

국제무대음향 · 영상산업전
9월 2~4일 서울 SETEC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법음(法音)은 사부대중의 신심을 북돋우고 수행과 포교의 인연을 잇는 중요한 매개다. 그러나 법당의 울림이나 노후화된 음향시설로 인해 스님의 법문과 염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찰의 건축적 특성과 법회 환경을 고려한 전문 음향·영상시설 구축이 필요한 이유다.

사찰 최신 무대기술을 살펴보는 'KOSOUND+STAGETECH 2026 국제 무대 음향·영상·조명·산업전'이 9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서울 학여울역 SETEC 제1·2·3전시장에서 열린다.

(사)무대음향협회와 서울전람㈜이 주최·주관하는 이번 전시회에는 국내외 음향·영상·조명 관련 기업과 전문가들이 참가한다. 법당과 대웅전은 물론 야외법회, 봉축행사, 산사음악회, 템플스테이 문화행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이 소개될 예정이다.

전통 목조건축으로 지어진 법당은 높은 천장과 기둥, 벽면 구조로 인해 소리가 여러 방향으로 반사되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출력이 큰 스피커를 설치하기보다 법당의 규모와 구조, 신도들의 위치 등을 분석해 소리의 방향과 범위를 조절하는 설계가 필요한 까닭이다.

특히 야외 봉축법회와 산사음악회에서는 넓은 공간에 균일한 음압을 전달하는 대형 음향시스템이 요구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국내외 주요 오디오 브랜드의 라인어레이 스피커를 실제로 들어보고 성능을 비교할 수 있는 방출 시연회도 진행된다.

사찰별 상황에 맞춘 일대일 상담도 마련된다. 법당 음향시설 교체부터 무선마이크, LED 영상장비, 무대 조명, 법회 중계와 방송 제어시스템까지 예산과 공간 구조를 고려한 통합 설계를 상담받을 수 있다. 여러 시설을 개별적으로 도입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중복 투자와 관리의 어려움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전시회 참관 대상은 전국 사찰 주지 스님과 종무소 관계자, 불교문화단체, 음향·영상·조명 및 방송시설 담당자 등이다. 사전등록자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노덕현 기자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54 광심돈헐 헐즉보리(狂心頓歇 歇即菩提)

내 머리가 어디 갔지?

狂 心 頓 歇 歇 即 菩 提

어느 날 아침, 슈라바스티 성의 청년 연야달다는 거울을 보다가 문득 기이한 의문에 사로잡힌다. 거울 속에는 눈·코·입이 선명한 자신의 얼굴이 비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

'거울 속에는 내 얼굴이 저토록 잘 보이는데, 정작 내 목 위에 붙어 있는 진짜 얼굴은 왜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지?'

허망한 의심에 빠진 그는 급기야 자신에게 머리가 없다고 확신한다. 그리고 성안을 미친 듯이 뛰어다니며 울부짖는다. "내 머리가 어디 갔지? 누가 내 머리를 가져갔어!" 〈능엄경〉 제4권에 나오는 이 황당하면서도 극적인 우화는 거울 속 허상에 집착한 나머지 정작 목 위에 온전히 있는 진짜 머리, 곧 실상을 보지 못하는 인간의 근원적인 미혹을 풍자한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연야달다와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거울 앞에 서서 그 속에 비친 외부의 조건으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 한다. 사회적 명성과 인기, 높은 직함, 경제적 풍요와 소비의 즐거움처럼 타인의 시선이 만들어낸 기준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것이다. 그러다 평판이 흔들리거나 물질적 조건을 잃으면, 정작 자신의 본질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존재 전체가 무너진 듯 불안해 한다.

바깥의 평가와 조건을 '진짜 나'라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현대판 연야달다가 되어 끝없는 갈증 속을 헤매게 된다. 세상의 인정을 좇느라 정작 내면의 본래 모습을 놓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잃었다고 생각하는 본래면목은 애초에 사라진 적이 없다. 눈앞의 허상에 시선을 빼앗긴 탓에 늘 그 자리에 있던 자신을 보지 못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 끝없는 방황을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 〈능엄경〉은 '광심돈헐 헐즉보리(狂心頓歇 歇卽菩提)'라는 말로 그 답을 제시한다. '밖으로 치닫는 미혹의 마음을 문득 내려놓으면, 그 내려놓은 자리가 곧 깨달음'이라는 가르침이다.

연야달다가 잃어버린 머리를 찾아 헤매던 마음을 멈추는 순간, 머리는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음을 깨닫는다. 마찬가지로 행복과 평온도 바깥의 명성이나 물질에서 얻는 것이 아니다. 끊임없이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내 안에 이미 존재하는 평온과 충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니 잠시 세상의 거울에서 눈을 돌려보자. 타인의 평가와 외부의 조건을 좇던 시선을 거두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자. 욕망이 잦아드는 그 자리에서 알게 된다. 내가 찾던 진짜 얼굴은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었다는 것을. 〈화순 불암사 주지〉

기차 타고 가을 템플스테이 갈까

9월 12일 영동 반야사 등 3개 코스 운영

가을을 맞아 템플스테이 열차 여행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일화 스님, 이하 문화사업단)이 "지난 3월 호남선, 4월 중앙선에 이어 오는 9월 12일 '경부선 템플스테이 테마 기차여행'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레일관광개발과 협업해 운영하는 이번 기차여행은 팔도장터관광열차를 타고 충청권 템플스테이 사찰을 방문하는 당일형 여행상품이다. 이번 경부선 기차여행은 충북 영동 반야사와 공주 이제사, 갑사 등 총 3개 사찰 코스로 운영된다.

반야사 코스는 점심 공양과 사찰 안내, 문수전 참배 후 편백나무숲으로 이어지는 둘레길을 걷는다. 이후 '달도 머물다 간다'는 뜻을 지닌 영동 월류봉과 레인보우힐링센터를 방문하며 자연 속에서 가을의 정취를 즐긴다.



이제사에서는 점심 공양과 '마음울림 특별 명상', 스님과의 차담을 진행한다. 이후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을 둘러보고, 공주한옥마을에서 족욕 체험을 하며 일정을 이어간다.

가을 풍경으로 이름난 갑사에서는 점심 공양과 주요 문화유산 관람, 둘레길 포행에 이어 한지 직사각과반 만들기를 체험한다.

상품의 예약은 코레일관광개발 홈페이지 내 '템플스테이 기획전'에서 할 수 있다. 신중일 기자



인도 다람살라 달라이라마 친견 6일
진옥스님과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순례 일정입니다.
11월01일 출발~11월06일 도착(6일 일정)
■ 일정: 인천-델리-암리차르-다람살라-달라이라마 친견(법왕궁)-남걀사원,네충사원-암리차르-델리-인천
▶ 동참금 : 290만원(보시금 30만원 포함)



운성스님과 함께 떠나는 스리랑카 명상순례 8일
치유와 깨어남의 멘토 운성스님과 명상참선을 함께 하며, 불교성지 참배, 현지 위빠사나 수행센터 명상체험이 있는 멋진 순례 길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출발일 : 11월25일 출발~12월02일 도착
■ 일정: 인천-콜롬보-아누라다푸라-담불라-시기리야-폴론나루와-캔디-갈레-아훈갈라-콜롬보-인천
▶ 동참금 : 299만원

중국 실크로드 성지순례 10일
삼장법사 현장스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최고의 순례 길
10월14일 출발~23일 도착
■ 일정: 인천-서안(진시황병마용갱,화청지)-법문사(부처님불지사리)-천수(맥적산석굴)-난주(병령사석굴)-장액(대불사)-칠채산(일곱빛깔 무지개산)-가욕관·돈황(막고굴,명사산)-유원-투루판-우루무치(천산천지)-인천
▶ 동참금 : 369만원

구화산, 불정궁, 보타산 6일
지장보살의 도량 구화산과 관음보살의 도량 보타산 순례
출발일 : 10월19일 출발~24일 도착
▶ 동참금 : 169만원

중국 아미산,낙산대불,대족석굴 5일
보현보살의 도량 아미산과 낙산대불,
중국 4대석굴중에 하나인 대족석굴 순례
출발일 : 10월21일 출발~25일 도착
▶ 동참금 : 문의

인도,네팔 불교성지순례 10일
11월 20일 출발~29일 (10일간)
■ 일정: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영축산-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아그라-델리-인천
▶ 동참금 : 320만원

미얀마 성지순례 8일
출발일 : 10월20일 출발~10월27일 도착(8일)
■ 일정: 인천-양곤-바간-헤호-짜익티요 황금바위-양곤-인천
▶ 동참금 : 360만원 황금바위 포함

미얀마성지순례 6일
12월01일 출발~12월06일 도착(6일간)
■ 일정: 인천-양곤-바간-헤호-양곤-인천
▶ 동참금 : 330만원

부탄성지순례 7일
히말라야의 불교왕국 부탄성지 순례입니다.
출발일 : 10월21일~27일(7일간)
■ 일정: 인천-방콕-부탄 파로-팀푸-푸나카-파로-카트만두-인천
▶ 동참금 : 문의

예약 · 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
마음여행사 검색